

AI로 성장동력 마련하는 양대 포털

네이버 '자체기술' vs 카카오 '챗 GPT 활용'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
외부 LLM 도입으로 시너지 전략

카카오 AI 카카나에 오픈AI 이식
AI 에이전트 개발... 연내 공개 목표



AI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로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7조873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2%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6.6% 증가한 4915억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특히 AI 사업의 영업손실이 영업이익 증가세를 꺾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5년 전후 다 큰 AI 전략을 세우고 기업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자체 LLM에 외부 LLM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카카오는 외부 LLM을 적극 받아들이고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체 LLM이자 자사 서비스에 최적화한 '하이퍼클로바X'의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자체 LLM만을 활용하려던 전략을 수정, 외부 LLM 도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경쟁사들이 무제한적으로 AI 성능을 확장하는 반면, 하이퍼클로바X는 네이버 서비스에 최적화된 모델 능력과 속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글로벌 빅테크 LLM 등 외부 다양한 LLM과 협업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올해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온서비스(On-service) AI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주요 매출처인 검색 광고 사업은 AI 엔진을 통해 광고 효율을 극대화 하는 한편 외부 매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커머스 분야는 상반기 중 개인 맞춤형 쇼핑 서비스 '네이버플러스스토어'를 별도 앱으로 출시해 커머스 부문 이용자의 록인(Lock-In) 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적극적으로 외부 LLM을 도입하고 AI 소프트웨어 파워에 집중한다.

지난해 카카오는 외부 LLM을 활용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세우고 글로벌 빅테크의 LLM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조직을 별도로 조직했다.

이번 달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AI 에이전트(비서) '카나나'에 오픈AI의 챗GPT를 이식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와 오픈AI는 카카오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AI 에이전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연내에는 여러분이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나나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오픈AI의 최신 AI 기술 API를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네이티브 컴퍼니(AI native company)'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챗GPT 엔터프라이즈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대화형 AI 서비스 '카나나'를 카카오톡과 별도 앱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카나나는 이용자와 일대일 대화하는 것을 넘어 그룹 채팅에서 다대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차별점이다.

정 대표는 "올해 상반기 퍼블릭 CBT(일반 사용자 대상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네이버클라우드와 리벨리온이 사우디아라비아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왼쪽),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사우디 AI구축 MOU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LEAP 2025' 행사에서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사우디아라비아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AI 기술 역량과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문화와 언어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랍어 기반 LLM 사업 협업 추진 ▲사우디아라비아 공공·민간 부문 파트너사 및 잠재 고객 공동 발굴 ▲사우디아라비아 AI 밸류체인 생태계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한다.

네이버는 LLM을 사전학습 단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 리벨리온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AI반도체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한국 스타트업 최초로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토대로 중동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현재 아랍코 데이터 센터 사업화와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사우디의 AI 인프라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서현 기자

LG CNS, 델테크놀로지스와 맞손... AI사업 동맹 강화

국내외 고객사들 AI 전환 돕고
AI인프라·솔루션 전문가 양성

인공지능 전환(AI) 전문기업 LG CNS가 델테크놀로지스와 손잡고 국내외 AI 사업 생태계 확대에 나섰다.

LG CNS는 최근 LG CNS 마곡 본사에서 델테크놀로지스와 AI 인프라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MOU를 계기로 LG CNS는 AI 인프라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델 AI 팩토리'의 개방형 생태계에 한국 AX 파트너로 참여해 국내외 고객사들의 AI 전환을 돕는다.

델 AI 팩토리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기술과 델의 서버, 스토리지,

AI인프라사업 협력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현신균 LG CNS 대표(우)와 김경진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 총괄 사장이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LG CNS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결합하는 개방형 에코 시스템 방식으로 파트너사들의 AI 활용을 지

원한다. 양사는 AI 인프라 협업체를 꾸려 공동 AI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등 기술

교류를 이어나가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AI 인프라 설비·솔루션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향후 이들 기업은 AI 솔루션·서비스 분야로 협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LG CNS의 생성형 AI 기술인 'D AP GenAI 플랫폼' 및 LG AI 연구원의 초거대 인공지능 '엑사원'을 델 AI 팩토리와 결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올해 금융, 제조, 유통,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통한 고객 가치 혁신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델테크놀로지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인프라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리멤버앤컴퍼니 '자소설닷컴' 자회사 흡수

회원 130만명 보유 신입채용 플랫폼

리멤버앤컴퍼니가 신입부터 경력까지 직장인들의 커리어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했다.

경력직 채용 플랫폼 '리멤버' 운영사인 리멤버앤컴퍼니는 신입 채용 특화 플랫폼 '자소설닷컴' 운영 자회사 앵커리어를 흡수 합병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소설닷컴은 13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입 채용 특화 플랫폼이다. 기업별 채용 일정·공고 확인에서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자

간 소통까지 가능하다.

리멤버앤컴퍼니는 "자소설닷컴의 가장 큰 무기는 우수한 인재 풀"이라며 "국내 상위권 대학 취준생의 60% 이상이 자소설닷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으로 리멤버앤컴퍼니는 경력과 신입 채용 특화 플랫폼을 모두 보유한 채용 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구인 기업에 경력직뿐 아니라 자소설닷컴의 우수한 신입까지 전 연차를 아우르는 핵심 인재 채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T, 작년 매출 26.4조 '역대최대' 달성

"올해 AX 역량강화·혁신 기반
지속가능한 성장 이룰 것"

KT가 1998년 상장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KT는 13일 지난해 매출 연결기준 26조4312억원, 별도 기준 18조579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0.2%, 1.1%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4분기에 시행한 인력 구조개선 등 일회성 인건비가 반영되며 연결기준 8095억원, 별도기준 3465억 원을 기록했다.

KT의 장민 CFO는 "2024년 KT그룹은 AICT 기업으로의 전환과 본업 경쟁

력 강화를 통해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2025년에는 AX 역량 강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KT의 기업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선 사업은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 '요금' 등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며 전년 대비 1.3%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 5G 가입자 비율은 전체 핸드셋 가입자의 77.8%를 기록했다. 무선 서비스 매출은 5G 가입자 수 증가와 로밍 사업 및 MNVO 사업의 꾸준한 성장으로 전년 대비 1.7% 상승했다.

/김서현 기자

우아한형제들 1230명 중·소상공인에 노무상담·교육 지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통해 17개월간 총 1230명의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아한 노무 해결사는 중·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노무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대일 노무 컨설팅과 실시간 전화 상담, 상담 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민 관계자는 "1:1 노무 컨설팅은 시간을 내기 힘든 중·소상공인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며 "전화 상담은 생업으로 바빠 대면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업주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사업자 확대 적용)에 대한 대비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항목을 추가, 중·소상공인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업주의 니즈에 맞춰 프로그램에 여러 상담 항목을 추가했다고 배민은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